

'새로운 전주' 만들기 위한 지원 건의

우범기 시장, 우원식 국회의장·정동영 의원·전북연고 의원 만나 대광법 개정·국가 예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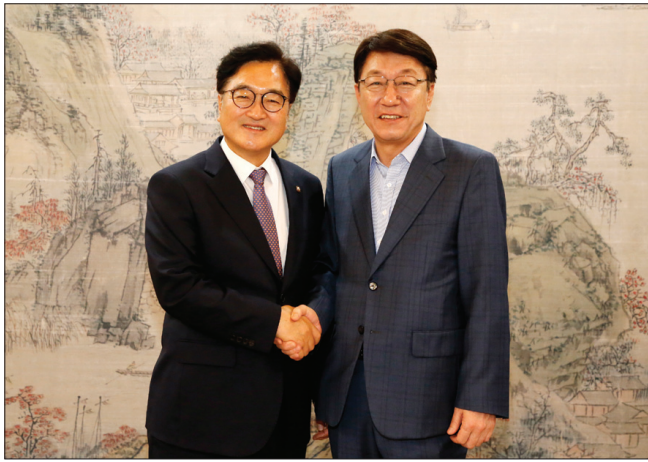
우범기 전주시장이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지원과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우범기 시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구갑)과 박정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및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전북연고 국회의원인 이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2일과 13일에도 이틀간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우 시장이 이날 국회를 다시 찾은 이유는 전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함이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3대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지역의 공정한 교통접근성 실현'과 더불어 전북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그동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에서도 제외되면서 국가 차원의 행·



우범기 전주시장이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지원과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우 시장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도 대광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새로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정법안 통과를 건의하게 됐다.

전주시의 요구대로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인근 지역들과 연결되는 시·도 도로 및 국도개설시 전체사업비의 5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어 우 시장은 예산반영의 키를 쥐고있는 제22대 전반기 박정 신임 예결위원장을 만나 △전주부성 복원·정비 △간재선비문화수원원 건립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고래 위

를 걷는 상상의 나래K-Lake 조성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 시 주요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하며 향후 국회단체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우 시장은 정동영 국회의원을 만나 △드론축구 중추국 위상 강화를 위한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지역의 주력산업과 역사가 융합된 지역특화 과학·문화 복합공간을 만드는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완주 만경강 중류 신천습지와 백석저수지 생태 경관의 보전·복원을 통해 도심 속 생태문화체험공간을 만드는 '백석 철새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에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이날 전주 출신으로 JTBC 앵커를 역임했던 이정현 국회의원을 만나 전주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 등 전주 발전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사업 반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전주로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 시기에 맞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온가족 시민장터 개최

22일 시청 앞 노송광장서 '오감만족 이색체험' 주제 진행

전주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살거리와 즐길거리를 모두 아우르는 '제3회 전주시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에서는 '오감만족 이색체험'을 주제로 노송광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판매 장터와 체험 장터, 이벤트, 공연 프로그램, 놀이 장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판매 장터에서는 공동체 17개 팀이 참여해 자체 제작한 다채로운 수공예 생활용품과 간식 등의 먹거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총 16개 팀이 참여하는 체험 장터에서는 생활용품 및 장신구 제작,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이날 노송광장 한 켠에는 협동제기차기와 고무놀이,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스포츠스태킹, 한



공, 휴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 장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이날 시민장터에서는 △(어린이)방송댄스 △음악놀이 △(어린이)해금 연주 △(어린이)난타 공연 △드럼 연주 △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펼쳐진다. /김욱기 기자

노후주택 개보수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전주시, 5억4000만원 투입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안전하게 고쳐주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고 17

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건축 및 설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채용한 후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와 주거 공간 개선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는 복권기금 지원액을 포함해 총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월 말까지 90여 가구가 주택 수리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노후·불량 지붕 개보수 △건물 내·외

측 단열 시공 △고효율 단열 창호 설치 등 호우 피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지속 시행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08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호국보훈의 달' 전주 보훈누리공원 방문객 발길 이어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전주 보훈누리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이날 들어 어린이집·유치

원 원아부터 추모를 위해 타지에서 방문하는 보훈단체 소속 노인인 이르기까지 보훈누리공원에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시민이 찾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보훈누리공원에서는 가족 단위 체험객의 방문뿐만 아니라 유치원 체육대회 단체 행사도 진



행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공원 조성

을 완료했으며, 이후 보훈누리공원 이용 활성화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6·25 군복 체험 △호국영웅에게 감사 편지 쓰기 △프로토존 △보훈 역사 상징모형 열쇠고리 색칠하기 등 보훈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유아숲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래세대를 위한 콘텐트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친절 봉사행정 위한 청원 친절교육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7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신규임용자와 대민업무 담당 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원 친절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홍은선 강사가 진행한 교육에서 직원들은 △공직자 서비스의 이해 △유형별 민원 상담 응대 요령 △악성 민원



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사례 및 대응·보호 방법 등 친절 봉사 행정서비스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사례도 공유했다. /김욱기 기자

카메룬 중부지역 소재 병원 실무자들, 전주덕진소방서 방문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카메룬 중부지역 소재 병원 실무자들이 전주덕진소방서에 방문했다고 17일 전했다.

카메룬 중부지역 소재 병원 실무자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시행하고, 인제대학교가 수행하는 '카메룬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 기반 구축 과정' 사업으로 한국의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 견학을 위해 전주덕진소방서를 방문했다.

카메룬 중부지역 소재 병원은 실무자 및 병원전단계 응급의료 실무자 등 15명과 연구원 2명, 한-불 통역사 1명이 방문했다. 멀리서 온 이들을 맞이



하기 위해 전주덕진소방서는 금암119 안전센터 차고에서 응급의료 장비 및 기자재를 진열해 놓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이어서 전주덕진소방서는 △소방서 역할 및 기능 소개 △구급차 및 구급장비 소개 △EMT 교육훈련 시스템 소개까지 진행했다. /김욱기 기자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healthy country

건강 한국 실현에 기여하는 식품 연구기관

대한민국 첨단식품과학기술이 창조하는 새로운 미래!
그 중심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